

■ 시상식 자료집

제2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賞)



일시 | 2004년 4월 26일(월) 오후 4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CBS TV

후원 | 소망화장품 sOmang Cosmetics 극동방송 FAREAST 극동방송

목 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심사 총평	5
[발제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교회	9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농어촌

구세군모산교회	15
순복음푸른초장교회	20
송전교회	24

중소도시

남원살림교회	27
동두천 낙원교회	30
오산침례교회	33

대도시

고척교회	36
대구남산교회	39
도원동교회	43

특수지역목회

해인교회	46
------	----

특별상

덕수교회	50
------	----

[부록] 제2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소개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개

제2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심사 총평

조홍식 위원장(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땅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정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 선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신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소망화장품 강석창 사장님 및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 CBS TV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올해 제정된 특수목회사역교회 부문을 후원해 주신 우리음식이야기 이영규 대표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간이 짧고 준비가 충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2개 교단의 총 34개 교회가 접수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교회사회복지 활동을 보여 주었습니다. 심사과정과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평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심사과정

전체 심사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는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8명의 심사위원이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1교회당 3인의 위원들이 심사하여 평균치를 조정하여 점수를 매겼습니다. 원래 서류 심사의 목적은 이미 밝혀진 선정기준 10가지 기준(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 교회 시설의 개방 정도,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 운영주체의 창의성과 전문성, 운영의 합리성과 개방성, 평가 방법의 활용도,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 본 교회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 프로그램의 지속기간과 파급효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에 의거하여 수상 대상자 10개 교회 수의 2배수인 20개 후보교회를 선정하였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금년부터 특수목회사역교회 분야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수목회사역교회는 "사회복지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성도의 대다수가 본 교회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는 그러한 일반 복지기관이 아닌 등록된

교회”를 말하는데, 금년에 처음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6교회와 1기관(기관은 애초부터 접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저희들의 홍보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접수가 되어 서류 심사와 실사에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교회가 아닌 점 때문에 최종 선정회의에서 부득이 제외되었습니다)이 응모해 주었습니다. 34개 교회 전체에 대한 서류 심사 점수(50점 만점)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정된 20개 교회에 대한 실사를 행한 후 점수(50점 만점)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때 실사 점수는 서류 내용의 진실성(20점 만점), 교회사회복지 담당 교역자나 담당 실무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20점 만점), 교회의 사랑실천 여건과 분위기(10점 만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수 부여는 방문한 심사위원 평가 70%, 기윤실 실무자 평가 30% 점수를 합산 반영하였습니다.

3단계는 1단계 서류 심사점수와 2단계 실사 점수를 합한 점수(100점 만점)로 4개 영역별로 각각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4개 영역 구분은 접수된 교회의 지역별, 교인 수별 변수를 고려한 것입니다. 4개 영역은 대도시 교회, 중소도시 교회, 농어촌 교회, 및 특수목회사역교회 등입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접수된 34개 교회는 대도시교회 8개, 중소도시교회 12개, 농어촌교회 7개, 특수목회사역교회 7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들 4개 영역에 따른 합계 점수 우선 순위를 정한 결과, 대도시 교회 3개, 중소도시 교회 3개, 농어촌 교회 3개, 특수목회사역교회 1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고문을 맡고 계시는 손인웅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덕수교회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고문을 맡고 계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처럼 특별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4단계는 위의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결과를 두고서 명예심사위원으로 위촉된 11개 교단 총무님들 가운데 참석하신 4분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11개 교회(특별상 1개 교회 포함)를 선정하였습니다.

2. 심사평

첫째, 1단계 서류 심사와 관련하여 1) 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은 지역사회 문제 및 주민들의 욕구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주로 보았는데, 몇몇 교회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지역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2) 교회 시설의 개방 정도를 보면, 대예배실까지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3)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를 보면, 대다수 교회들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평가까지 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4) 운영주체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면, 선정된 교회들은 사회복지전문가 및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운영의 합리성과 개방성 정도를 보면, 선정된 교회들은 프로그램 운영과정상 지역주민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또한 지역 욕구조사 등 주민의 욕구과약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6) 평가 방법의 활용도를 보면,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평가 실시와 함께, 평가 내용을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활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7)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을 보면, 대교회의 경우는 전체 일반현금 가운데 10% 이상, 작은 교회의 경우 40% 이상을 사용하며, 특별헌금 형식의 예산도 별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8) 본 교회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보면, 모든 교회 교인들이 교회사회복지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9) 프로그램의 지속기간과 파급효과의 경우는 교회 창립 때부터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 교회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서 일을 꾸준히 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는 시설개방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교회 교인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일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특수목회사역교회의 경우도 위의 10가지 기준에 의해 서류를 1차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교회 성도의 대다수가 본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지만 이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남을 돕고 있는가 하는 점과, 대다수 일반 교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 얼마나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사랑실천을 해 나가느냐 하는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한 바, 상당히 잘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셋째, 실사를 한 경우, 접수된 서류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였으며, 오히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회복지 담당 교역자나 담당 실무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강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마무리 글

34개 교회를 대상으로 4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을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교회마다 너무나 훌륭한 복지프로그램

램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 훌륭한 교회들과 1개 기관이 아깝게 선정되지 못했음을 심사위원들과 명예심사위원들 모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깝게 선정되지 못한 교회들이 내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 선정사업에 꼭 동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심사위원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는 계속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 선정사업을 발전시켜 교회의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격려, 후원하며, 교회 시설의 개방운동,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자료화하여 보급, 확산시킴으로써 교회사회복지를 이 땅에 굳건히 뿌리내리는데 헌신할 것을 주님과 목사님께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교회들과 기관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명예심사위원]

김남선 사관(구세군대한분영), 태동화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서병하 장로(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심현승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홍성식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윤지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김성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류태선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재영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엄호섭 목사(예수교대한성결교회), 김형기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심사 위원]

강영실 위원(한국성서대 교수), 김경식 위원(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동배 위원(연세대 교수), 김현호 위원(다우리교회 목사), 두준기 위원(휴먼테크기술사무소 대표), 박정수 위원(목민교회 목사), 오세란 위원(서울기독교대 교수), 오창섭 위원(서라벌대 교수), 이만동 위원(항동교회 목사), 이영규 총무(우리음식이야기 대표이사), 조흥식 위원(서울대 교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教會)

오세란 위원(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

최근에 와서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자원봉사를 격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를 보다 전문화, 체계화 시켜 사회복지를 교회 활동의 한 분야로 형성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래에 교회에 대해 제기된 사회의 비판, 즉 교회가 예배와 복음 전도, 기도 등 교회 내적 활동에만 치우치고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에는 무관심하며 심지어 서민들과 분리되는 경향마저 보인다는 비판에 대해 교회가 자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요한1서 3:17-18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고 하였다. 여기서 형제란 혈연관계의 형제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제한된 의미가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에서의 이웃과 동의어일 것이다. Ferguson(1992)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교회사회선교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한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 주님” 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에 대해 예수는 “나의 양을 먹이라(요 21:15)” 고 말씀하셨다. 두 번이나 더 예수는 이 말씀을 반복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예수는 누가 양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셨다(마 25:35-45). 예수는 배고픈 양, 헐벗은 양, 병든 양, 낯선 양, 감옥에 매인 양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사회봉사나 사회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원래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사회사업을 시작하여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을 시설에서 보호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교회가 교회성장과 시설확장, 물량주의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였고 예배와 전도와 교회 내적 활동에만 집중하였다. 교회가 교회 내에서의 예배와 내적 모임에만 관심을 갖고 교회 밖에서의 사람들의 문

제에는 무관심해져도 되는 것일까?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주위에서 보여지는 가난과 어려움에 대해 교회가 무관심해도 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많은 교회들의 반응은 그들이 인정하든 안하든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난하고 어렵고 절박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외면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성서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는 사람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사야 10:1-2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였고, 아모스 5:11, 21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였다.

그러면 왜 우리 한국사회의 교회들이 안으로만 치중하고 교회 밖의 문제에 무관심하면서도 그것이 묵인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한 요인들로는 교회 성장에 대한 지나친 관심 등이 자주 지적되어 왔지만 필자는 다른 요인으로 사회봉사나 사회복지에 대한 신학적인 체계나 교리적 밑받침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다른 분야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매우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기독교 봉사신학에 대한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요사이 교회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사회봉사에 대한 신학적 기반이나 논리적 체계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점차 이에 관련된 연구나 지식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분야에 축적된 지식은 아직까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왜 교회가 사회봉사를 해야 하며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뢰성 있는 대답을 주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요사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활로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들이 교회의 사회봉사나 사회복지 참여에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관련된 지식체계를 개발하여 알릴 때,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신학사상은 매우 참고할 만하다. 웨슬리는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신앙의 증거는 사회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

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봉사는 신앙의 증거이고 성화를 가능케 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였다. 그는 기독교를 은둔자의 종교, 기도하고 명상하는 종교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행위로 보았으며, 교회가 복음만 설교할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등 사회적 제반 문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서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하며, 이것은 선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자의 선행은 윤리 이상의 것이고 그것은 곧 신자의 구원 여부와 직결되며, 구원의 증거이며 현실적 요소라고 하였다(구금섭, 2003).

교회는 지역주민들 중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에 매우 좋은 입장에 있다. 그러한 장점으로는 교회가 무엇보다 많은 수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잠재 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민간복지단체와는 다르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지 외에 영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있어서 왕래하기가 쉽다는 것, 그리고 공식적인 조직체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미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이 과업중심적이며 기관의 목적과 관련된 제한된 인간관계만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주민들에게 압도적인 느낌을 주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봉사가 지역사회와 교회활동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미 건물이나 시설, 설비, 차량, 음식, 자원봉사자 등을 갖추고 있어 비용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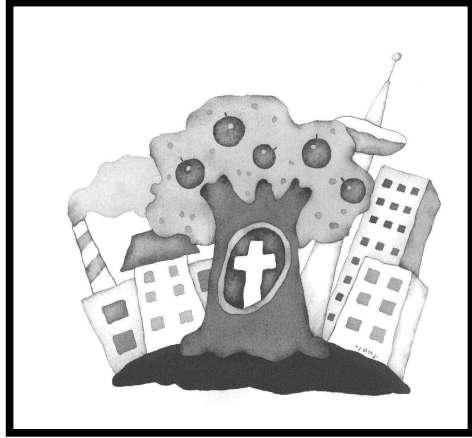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인력이 확보되더라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처음과 같은 열의와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봉사란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치고 동기에 대해 회의가 들 수 있다. 따라서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이들에게 제직훈련이나 평신도훈련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동기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 자신이 사회봉사를 사회복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확고해야 한다. 그러한 확신은 요즈음과 같이 성장우선주의와 이에 따라 좌우되는 교회와 목사의 사회적 위상을 볼 때 어려운 결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Chafin(1988)은 “복음은 봉사의 날개를 타고 더욱 잘 전파 된다” 고 말한다. 그는 봉사가 복음전도를 위한 미끼가 되어서는 안되지만, 봉사는 사랑실천을 위한 대안을 교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누가복음 14:14의 말씀은 우리에게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 준

다. 권력자나 부유한 자를 대접하는 것은 이해타산과 관련되지만, 가난한 자나 장애인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것과 무관한 것으로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고 하셨습니다.

교회사회봉사의 또다른 좋은 점은 교인들에게 교회내의 조그만 봉사조직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데 있다. 지역사회 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들은 만남과 활동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위로를 제공하면서 서로의 삶에 중요한 공동체(community)가 되어 간다. 교회란 신앙의 공동체이고 서로 형제자매이지만 이러한 것이 상징적인 의미에만 머물지 않고 역동적인 삶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교회 내에 건강한 공동체로서 자리잡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는 이제 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누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찾아봐야 하며 이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도움을 실천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변화되어 이전과 같이 가족에게 전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고,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사회복지라는 제도를 통해 보완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가족이라는 두 제도만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기에 부족하며 그 간격을 메워주는 체계로서 교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더 요망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조직체로서, 시장과 가족의 지지망에서 벗어나 고통 받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복지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라는 동기에서 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라는 욕구조사에 기초해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 후에도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에게 미친 영향이나 파급효과, 어려웠던 점이나 한계점, 개선할 점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평가하여 시간이 감에 따라 보다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교인이나 주민의 삶에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상교회소개

◆ 구세군 모산교회



- ▷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262-7
- ▷ 담임교역자 : 이재오 사관
- ▷ 교회 창립일 : 1992년 12월12일
- ▷ 교단 : 구세군
- ▷ 교인 수 : 102명
- ▷ 2003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무료급식, 도시락배달, 반찬 나누기, 푸드뱅크, 수채민돕기, 바자회

<구세군 모산 교회 연혁>

- . 1992년 12월12일 배방면 공수리 72-25 신우빌딩 4층에 모산영문 개척.
인도 : 부장 장희동 초대 담임사관 : 정위 신공순동부인
- . 1995년 2월27일 2대대 담임사관 부위 이재오동부인 임관.
- . 1995년 7월15일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262-7번지 대지 120평을 구입
- . 1996년 7월20일 아산 종합 건축사무소에 신축설계.
- . 1996년 9월 1일 기공예배. 인도: 참령 김찬오
- . 1997년 1월13일 185,21㎡ 준공검사필(아산시청)
- . 1997년 2월15일 구세군 모산 어린이집 승인- 2개반 27명 (아산시청)
- . 1997년 4월30일 구세군 모산 나눔의집 개원.
(1999년 2월 3일 전문시설로 승인)
- . 1999년 4월15일 구세군 나눔의집 이전하여 지역봉사 프로그램을 확대
(아산시 배방면 마을회관을 무상으로 임대)
인도 : 부장 이성덕
- . 2000년 5월 1일 구세군 모산 어린이집 증원
4개반 51명 (아산시청)
- . 2000년 5월 6일 명성건설(박성섭)과 2층 건축계약
- . 2000년 5월16일 본영으로부터 증축 승인
- . 2000년 5월27일 기초푸드뱅크 승인(광역푸드뱅크)
- . 2000년 6월 1일 2층 증축공사
- . 2000년 10월18일 증축완료와 함께 등기부등록 (아산시)
- . 2000년 11월 23일 헌당예배. 총면적 373,68㎡ (185,21㎡증축)
인도 : 부장 강성환



- . 2001년 4월 18일 아산시 기초 푸드뱅크 승인(아산시) 교회에서 시작
- . 2003년 1월 3일 아산시 기초 푸드뱅크 사무실 임대(18평)
- . 2003년 7월 12일 주택현당예매 34평 증축
- . 2004년 4월 17일 푸드뱅크 충남서부 지역센터.

<모산교회의 비전>

모산 영문은 건축을 한 후부터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군우들의 선교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영문의 나아갈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첫째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경건 신앙" 실천

둘째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실천

셋째 " 믿음의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한 생산신앙"실천이 그것이다.

사도행전10장의 고넬료 가정의 신앙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사랑의 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교회봉사가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가는 것이다. 경로식당, 푸드뱅크, 어린이집, 반찬나누기,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활용, 및 나눔의 집 활동은 선교 활동이며 봉사활동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 주의 사랑을 나누어 교회가 영혼구원의 현장을 크게 넓혀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세군 모산 교회의 미래를 향한 목회방침이다.



▶ 대표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명 : 구세군 나눔의집 (구세군 모산교회푸드뱅크)

2. 연혁

- 1997년 4월 구세군 교회에서 모산 지역 저소득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반찬나누기 실시무료급식 시작
- 1999년 1월 구세군 교회에서 실시하던 무료급식을 면사무소로부터 배방면 마을회관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나눔의집 이전
- 1999년 2월 전문시설로 승인 (모산 99-6호에 의거)
(교회에서 실시하던 무료급식 및 반찬나누기 프로그램 대상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중 여러분의 도움으로 배방면사무소에서 관리하던 마을회관 약 100평을 무상으로 임대 저소득 및 독거 노인들을 복지서비스를 실시-주방 및 집기류 구입)
- 2000년 12월 나눔의집 난방 및 시설수리 (심야전기 및 식당수리)푸드
- 2001년 4월 아산시 기초 푸드뱅크 지정
- 2000년 3월 광역푸드뱅크에서 기초푸드뱅크 지정의뢰
- 2000년 5월 아산시기초푸드뱅크 지정
- 2000년 5월-6월 푸드뱅크 사업준비단계
- 2000년 6월 사업설명회(구세군나눔의집 및 지역민)
- 2000년10월 푸드뱅크 리플렛 및 스티커 제작. 푸드뱅크 사업 본격 실시
- 2001년 4월 아산시 기초 푸드뱅크 지정
- 2001년10월 1톤탑차 기증(케이엠기술정보주식회사 - 나우영)
- 2001년10월 냉동·냉장고 설치(아산시 지원)
- 2002년 1월 아산시 예산지원(임의단체지원금 5,700천원)
- 2002년 6월 냉동탑차 지원(아산시)
- 2003년 1월 아산시 예산지원 (임의단체지원금47,000천원)

3. 사업개요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남은 사랑의 잉여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푸드뱅크 사업을 아산시에서 활성화시켜 저소득층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기탁업체 / 수혜처를 발굴 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연결망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사업내용

푸드뱅크(국번없이 1377)는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의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 유용하게 사용코자 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는 첫째, 저소득층의 실질 생활비 절감 및 생활고를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둘째, 잉여식품을 기탁하는 기업체, 개인 자원봉사자들의 사회복지연결망 형성을 통해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에 기여합니다. 셋째, 잉여식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식품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그 환경오염을 방지합니다. 유통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는 가공식품이 총 생산량의 10%에 이르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15조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5. 사업현황

(1) 기탁업체 현황

전원식품 - 냉동식품, dk냉동 - 냉동식품, 카파 - 김치, 우리승진식품 - 양념류, 오병이어 - 농산물, 삼조셀텍 - 소오스(식품), 반달식품 - 만두, 동원식품 - 냉동식품, 고려 인삼 - 건강식품, 학교급식 3곳, 식당 1곳, 유통시설 3곳, 기타 개인 10곳, 광역푸드뱅크를 통한 기탁

(2) 수혜처 현황

사회복지시설 - 23개소(조건부 : 7개소), 경노식당 - 10개소, 사회복지단체 - 16개 단체, 경노당 - 402개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51가구/6,699명, 독거노인 - 108명, 소년소녀가정 - 12명, 가정위탁아동 - 24명, 모자가정 - 141세대, 부자가정 - 17세대, 충남푸드뱅크 및 타 시군 푸드뱅크. 천안을 비롯한 인근 시군 시설

(3) 기탁물품

빵, 야채, 과일, 음료수, 냉동식품, 두부, 면류, 국수, 라면, 우유, 기타부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의류, 신발 등)

※ 전국, 광역푸드뱅크 기탁건 제외

6. 사업내용 결과와 현황 및 사업의 평가결과

(1) 구세군 나눔의집 사업내용 결과와 현황 (2003년 결산기준)

경로식당명 : 구세군 나눔의 집

급식방법 : 주5회(월-금) 중식에 한함, 주6회(월-금) 도시락나누기

계획인원 : 22,050명(경로식당 16,800명, 식사배달 5,250명)

예산액 : 56,861,000원(보조금 34,031,000원, 자담 및 기타 22,830,000)

(2) 사업성과

모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중식제공과 생활보호대상자와 이에 준하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점심을 지원함으로써 이 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지역 노인 및 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연합하여 경로의를식을 고취시키며,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협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3) 평가

- ① 노인급식 및 식사배달은 모두 차량으로 이동되고 있으며, 이들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에 매우 유의해야 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다.
- ② 영양균형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무료급식을 위한 약간이라도 배려된 식단이 없음에 아쉬움이 있다.
- ③ 노인분들을 여가 및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포장지 접기 및 도자기 전사지 붙이기를 실시하여 보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 불량 많아서 중단하게 되었다.

(4) 개선방안

- ①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담 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었으면 한다.
(안전교육 및 봉사자교육)
- ② 노인분들을 위한 표준 식단표를 전국경로식당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7. 사업에 소요된 예산 및 동원방법과 사업진행과정

- (1)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나눔의집 자체 예산으로 운영함
- (2) 2000년부터 아산시 경로식당으로 지정 받음과 동시에 아산시 예산과 자체 예산으로 나눔의집 운영
- (3)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자체예산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함
- (4) 2002년부터 아산시 예산을 지원 받음과 동시에 후원금으로 운영함

◆ 송전교회



- ▷ 위치 : 경기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 727-2
- ▷ 담임교역자 : 박만규 목사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 ▷ 교인 수 : 300명
- ▷ 2003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노인대학, 방과후학교, 독거노인 반찬봉사, 선한 이웃(집수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 농촌지역에 자리 잡은 송전교회는 94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신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던 거의 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개인의 영혼구원과 지역의 복음화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교회이었던 것이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고 한국전쟁의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개인구원과 지역 복음화라는 사명을 가지고 거처온 시간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다. 신앙의 선배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송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만규 목사가 부임하면서 송전교회가 받은 이 사명들은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먼저 이 지역을 알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기 이전부터 이 지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파악한 후 노인대학을 꿈을 꾸며 먼저 시작한 것이 지역 노인정을 방문하여 청소를 하며, 간식을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박만규 목사가 부임 후 맨 먼저 시작한 제자훈련반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대거 이 일에 투입되었고, 이들은 매주 한번씩 노인정을 방문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고, 김치를 비롯한 반찬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김치봉사팀이 발족되었다. 2년여에 걸친 노인정 방문과 독거노인김치봉사팀의 헌신으로 두 번의 경로잔치를 개최하였고, 100여분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였다.



2001년부터 노인대학을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다른 노인대학을 방문하고,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2002년 2월 첫 번째 노인대학을 시작하였을 때,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모였고, 2004년 4월 현재 재적 650여명, 출석인원 300여명이 노인대학에 등록, 출석하

고 있다. 송전교회 노인대학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업을 하는 교수들은 지역의 인적자원들을 섭외하여 함께 하고,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압화 및 분경, 컴퓨터 실습실 등을 제공하며, 학교의 선생님을 직접 파견하여, 실버댄스를 지도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어르신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인근의 학원과 기업체에서 차량을 파견하여 함께 돕고 있다. 그래서 송전교회의 노인대학은 교회의 노인대학이면서, 지역의 노인대학을 자리잡고 있다.

노인대학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다. 욕구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방과후에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교가 마치자마자 어린이들은 교회에 마련된 방과후학교 교실로 달려온다. 숙제를 지도하고,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며, 전체의 진행은 방과후학교에 헌신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지도사를 공부한 성도가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 10여명으로 시작한 어린이들이 현재는 20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교회의 주일학교에 출석하여, 육체적인 돌봄뿐 아니라, 영혼의 돌봄도 함께 얻고 있다.



청소년 문화교실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악기를 배우고, 연극을 하고, 학과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교회로 몰린다. 올해 처음 시작하여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호응을 받으며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

송전교회의 사명은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이다. 송전교회는 이 사명에 따라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민이 복지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교회에 복음에 대해 매력을 느끼도록 하려고 한다. 교회자체의 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여, 지역에 교회가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현재 송전교회 내에는 여러 팀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팀들도 있지만, 교회 밖으로 활동하는 독거노인김치봉사팀(반찬서비스), 교통안내팀(초등학교 등하교지도), 독거노인도우미팀(가정방문 청소 및 목욕, 말벗), 이미용봉사팀(주중1회 무료봉사), 선한이웃팀(집수리 및 대외지원활동), 무료별침팀 등이 활동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웃을 향한 송전교회의 이러한 여러 노력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대표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명 : 송전노인대학

2. 시행기간 : 2002년 2월 - 2004년 3월 현재

3. 목적 및 목표 : 하루 이틀 아닌 매일을 어울릴 곳 없이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대의 생활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노인들에게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및 내세에 대한 소망을 마련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건전한 노인상을 갖도록 하며,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자 함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복음을 더욱 전파하기 위해서 송전노인대학을 열게 되었다.

“너는 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나라(레위기 19:32)”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12)”

4. 대상자 :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5. 세부 내용

(1) 학과소개 (8개학과 11반)

- ① 한글학과 : 국어와 산수 교육을 통해 글을 읽고 쓰고, 셈을 하도록 한다.
- ② 미술학과 : 수묵화를 위주로 다양한 미술교육을 한다.
- ③ 음악학과 : 올바른 노래부르기를 배우며, 생활에서 즐거움을 갖도록 한다.
- ④ 실버댄스학과 : 실버댄스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며 생활의 활력을 갖는다.
- ⑤ 영어학과 : 알파벳과 단어, 회화 위주로 교육한다.
- ⑥ 컴퓨터학과 : 컴퓨터 기술을 교육하고 생활 속에서 인터넷을 사용 가능토록 한다.
- ⑦ 한문학과 : 한자를 습득하며, 고서를 통하여 정서를 함양한다.
- ⑧ 종교음악과 : 기독교 음악을 배우며, 바른 신앙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2) 교수 및 봉사자

2004년 3월 현재 학과 담당교수 11명, 자원봉사자 평균 50여명이 봉사하고 있다. 외부 협력교수는 실버댄스학과에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의 김명균선생님(각종 스포츠댄스 대회 수상)과 미술학과 한용숙선생님(서예)이 협력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주로 송전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며, 외부차량봉사자들은 오강학원, 맑은소리음악학원, 명문학원, 백인체육관, 남사노을학원등과 각 자원봉사자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고 있다.

(3) 주요활동현황

- ① 무료교육 : 8개학과 11반
- ② 무료진료 및 처방 : 송전의원, 동서의원, 부전약국, 고려약국,
- ③ 봉침(벌침)무료진료

- ④ 진료 협약(할인혜택) : 용인세브란스병원, 복음병원
- ⑤ 봄소풍 : 2002년 - 청와대(1.2차 약 300여명)
2003년 - 국회의사당(약 350명)
- ⑥ 생일잔치 : 각 분기별 1회 (연 4회)
- ⑦ 수지침 봉사활동
- ⑧ 특강 : 2002년 - 노인의 정신건강 (용인 정신병원)
2003년 - 치매예방 (용인 정신보건센터)
- ⑨ 특별활동 : 입체영화관람, 압화실습, 분경실습 (용인 농생명 산업고등학교)
- ⑩ 가을 운동회
- ⑪ 학습발표회 및 전시회 : 2002년 - 제1회 지팡이와 돋보기의 놀이마당
2003년 - 제2회 지팡이와 돋보기의 놀이마당

6. 동역자(연대)

- (1)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 (2) 차량봉사자 - 교회 인근의 학원차량, 회사차량
- (3) 지역학교 - 용인농생명 산업고등학교 스포츠댄스 대회 우승 수상경력 교사의 실버댄스 지도, 분경 압과 실습
- (4) 식자재 지원 - 지역의 식품가공공장에서 부식 및 국거리 지원

7. 예산 : 연간 약 10,000,000원

8. 시행 인력 : 봉사자 약 50여명

9. 집행부서 : 복지부

10. 시행 동기 및 시행 연수(역사)

- 1999년 3월 송전교회 내 독거노인 김치봉사팀 발족
- 2000년 3월 송전교회 내 경로당 봉사팀 발족
- 2000년 10월 제 1회 경로잔치
- 2001년 10월 노인대학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 2001년 12월 제 2회 경로잔치
- 2002년 2월 21일 송전노인대학 개강
- 2002년 8월 22일 2학기 개강
- 2002년 10월 3일 제1회 가을운동회 개최
- 2002년 12월 제1회 지팡이와 돋보기들의 축제(발표회) 개최
- 2003년 2월 27일 2003학년도 1학기 개강
- 2003년 8월 2학기 개강
- 2003년 10월 3일 제2회 가을운동회 개최
- 2003년 12월 4일 제2회 지팡이와 돋보기들의 축제(발표회) 개최
- 2004년 2월 26일 제 1회 졸업식(55명 졸업) 및 2004학년도 1학기 개강
- 2004년 3월 현재 재적 630명 출석 300명

◆ **순복음푸른초장교회**



-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98-4
신성빌딩 4층
- ▷ 담임교역자 : 한영란 전도사
- ▷ 교회 창립일 : 2001년 3월 3일
- ▷ 교단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 ▷ 교인 수 : 80명
- ▷ 2003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노인 대상 이,미용무료봉사, 농작물재배 무공해농산물 무료나눔, 자녀방과후 공부방, 독거노인 섬김, 숙식제공, 불우 아동 장학금 지급, 외국인근로자

식사, 여권, 병원치료 알선, 불우이웃 김장도우미, 무의탁노인숙소 위로방문 공연, 지역 대청소

< 교회 역사 >

저희 푸른초장교회는 이제 개척한지 만 3년(2001년3월3일 창립)이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한영란 전도사님은 신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암 발병으로 수술도 항암치료도 안되는 사형선고를 받으셨지만 금식기도 투병중 1년 후 재발하셨지만, 다시 금식기도로 암덩어리를 쏘아내어 눈으로 목도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기에 졸업과 동시에 작은 지하(50평)에서 아무도 돕지 않는 가운데 개척을 하시고 오늘 강단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사역을 해 오셨고 2년 반이 지나자 지금의 4층 교회(120평)로 이전하여(2003년 6월) 보다 적극적인 섬김을 위해 성도들의 헌신과 교역자들의 수고로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푸른초장교회는 작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성전부지가 200평 남짓 소유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노인분들과 청소년 결혼 가정 자녀들을 보호 교육시설을 계획 중에 있고 현 소재지 복지부서 에서도 그 동안 저희교회의 지역사회봉사를 지켜보고 이 일을 적극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아나 과부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일에 미약하나마 동참하기 위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을 위해 열악한 환경이지만 관심을 갖고 성도들과 신학생들에게 복지교육을 적극적인 후원을 해왔으며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2005년 이후 봉사방향 >

1. 노인 대상 이,미용무료봉사
2. 농작물재배 무공해농산물 무료나눔
3. 무주택자 가정(안수집사회에서 무료 집수리
4. 결손가정 아이들과 장애아특수반 방과후공부방
(각과목별 공부, 예배, 성경공부, 피아노, 컴퓨터, 영어, 찬양, 간식, 식사 등), 숙식제공
5. 독거노인 섬김, 숙식제공
6. 매년 불우 아동 장학금 지급
7. 선교원운영
8. 외국인근로자(토요 영어찬양예배) 식사, 여권, 병원치료 알선 등
9. 불우이웃 김장 담귀 포장하여 전달
10. 무의탁노인숙소 위로방문 공연(식사, 선물)
11. 지역 대청소
12. 문화교실운영(영어, 꽃꽂이, 미용)을 통한 불신자 전도
13. 모자 가정 숙소지원



▶ 대표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명 : 이. 미용봉사
2. 시행기간 : 매월 첫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3. 목적 및 목표 : 지역사회에 그리스도를 증거, 이웃사랑 실천과 섬김을 위해
4. 대상자 : 지역 거주(노인 분)과 거동이 힘든 독거노인과 장애인
5. 세부 내용 : (자유롭게)
 - (1) 점심 식사와 다과 및 선물
 - (2) 60세 이상인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염색, 파마, 컷트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 (3) 지체부자유자는 방문 봉사합니다.
 - (4) 저희 푸른초장교회는 이제 개척한지 만 3년(2001년 3월 3일 창립)이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한영란 전도사님은 신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암 발병으로 수술도 항암치료도 안 되는 사형선고를 받으셨지만 금식기도로 완치되시고 1년 후 재발 하셨지만 다시 금식기도로 암 덩어리를 쏟아내어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기에 졸업과 동시에 작은 지하(50평)에서 아무도 돕지 않는 가운데 개척을 하시고 오늘이 내가 강단에 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사역을 해 오셨고 2년 반이 지나자 지금의 4층 교회(120평)로 이전하여(2003년 6월) 사역할 은혜를 더해주시는 주님의 뜻을 찾기에 작은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6. 예산 : 월 20만원 이상
7. 시행 인력 : 6-12명
8. 집행부서 : 이. 미용봉사와 여선교회 주관
9. 환경 조건(사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 : 매월 노인정마다 편지를 보내고 전화로 알리고 차량으로 모셔옵니다.
10.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 퇴계원면 사무소 사회복지과 연계
11. 시행 동기 및 시행 연수 : 담임 전도사님이 지역에 무엇인가 헌신하고자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로서 미용선교에 비전을 두고 기도하셨고 봉사로 섬김에 손길이 더해져 2003년 8월 첫째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었고 주님 오실 그 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 남원살림교회



- ▷ 위치 : 전북 남원시 향교동 1058-6
- ▷ 담임교역자 : 문홍근 목사
- ▷ 교회 창립일 : 1991년 9월 29일
- ▷ 교단 : 한국기독교장로회
- ▷ 교인 수 : 320명
- ▷ 2003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가족복지사업, 지역 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남원살림교회는 1991년 9월 남원제일교회(당시 당회장 : 유재천 목사)에 의해 분립되어진 교회이다. 남원제일교회는 남원시 신개발 지역인 현재의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00평의 교회당을 신축하여 부목사였던 문홍근 목사와 함께 30여명의 교인을 분립하여 살림교회를 설립하였다.

살림교회는 교회재정의 51%를 선교비로 쓰자는 정신을 갖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선교에 힘을 쏟았다. ‘선교’와 ‘봉사’의 두 날개로 나는 교회로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루기 위해 전교인이 힘을 모으고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1996년 2월 남원시로부터 남원사회복지관 수탁 계약을 맺고 복지관을 교회가 운영하고 있다. 연간 약 3,500만원 정도의 자비부담을 하며 전교인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남원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가족복지사업 : 살림어린이집 운영, 늘 푸른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 야간보호사업(night care), 가족기능강화사업(가족축제), 장애인자활작업장 살림식품(김 및 미역 가공 공장) 운영,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 후원사업, 각종 상담 사업
- 지역사회보호사업 - 경로식당 운영, 반찬 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 살림노인주간 보호센터 운영 : 무료진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목욕 및 이미용봉사,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푸드뱅크운영, 간병인 파견 사업.
- 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복지학교 운영, 지역발전센터 운영, 지역주민 어울마당

행사,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환경도우미봉사단 운영, 지역 주민 자조 모임 육성, 지역사회 자원 동원을 위한 모금 및 자원 봉사자 육성 관리, 지역사회조사, 주민 자치조직 육성(영구임대 아파트임차인 대표자회의 구성 지원 육성)

- 교육문화사업 : 실버컴퓨터교실 운영, 한글교실 운영, 어린이 역사 및 문화 기행,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캠프
- 자활사업 : 노인 일거리 사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 취업 및 부업 알선

남원살림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로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잘 파악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교회의 선교 발판을 마련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며,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하여 브라질, 터키, 파키스탄, 카메룬, 헝가리, 필리핀 등 여러 곳에 파송 된 선교사들과 국내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여러 선교 기관들을 지원하여 하나님의 복음 선교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대표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명 : 남원사회복지관
2. 시행기간 : 1996. 2 - 현재
3. 목적 및 목표 :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희망과 사랑을 만드는 복지관 운영
4. 대상자 : 지역주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5. 세부 내용

사업구분	사업내용
가족복지/교육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문제 종합상담, 결연후원금 전달, 아름다운 가족축제 * 어린이 역사 및 문화기행, 어린이 계절학교, 방과후 교실, 영유아보육 시설 운영 * 청소년 캠프,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활동 *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 운영, 장애인 자활작업장 운영 * 소나무 노인한글교실, 은빛나들이, 실버컴퓨터 교실, 경로식당,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지역복지(지역사회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자원봉사단, 지역사회복지학교, 보호관찰사회봉사 지도, 사랑의 건강 달리기, 사랑의 음식초대전, 지역주민 욕구조사, 소식지 발행 등
재가복지(지역사회보호) / 자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대상자, 재가서비스, 사랑의 도시락 전달, 간병서비스, 정서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후원활동, 살림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6. 예산 : 307,048 천원

7. 시행 인력 : 33명

9.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 남원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수급자 가정 및 저소득가정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조직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재가 서비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동두천 낙원교회



-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03-2
- ▷ 담임교역자 : 공지태 목사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 ▷ 교인수 : 250명
- ▷ 홈페이지 : www.sumgimnara.com
- ▷ 2003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은빛노인대학, 푸드뱅크, 문화교실, 태국선교회, 동원 정신병원 팀사역, 미혼모시설(중간의 집)

낙원 교회는 1987년 4월 12일 7-8명 내외의 청년들 중심으로 동두천 변두리 지역에 2층 건물을 세를 내어 개척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성장을 지향하였고, 비록 동두천이 온갖 범죄가 만연하는 어두운 도시였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큰 사건들이 줄기차게 일어나는 부정판 도시였지만 이 동두천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믿고, 이 약속의 땅 동두천을 주께 드린다는 목표를 갖고 온 교우들이 하나로 나아갔습니다.

개척한지 12년이 되는 해!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기 직전인 1999년 12월 12일! 현 교회당 건축을 끝내고 이제까지 제자훈련을 통하여 배출된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동두천 지역이 문화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었기에 먼저 교회를 개방하여 다양한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문화교실을 시작하였고, 곧 이어 오갈 곳 없는 불우한 노인들을 위하여 교회 옆 건물을 구입하여 조그만 무료양로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 지역에 유난히 많은 식사를 해 드실 수 없는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하여 매일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밑반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동두천 지역의 복음화와 동두천 사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낙원교회의 비전은

1. 건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 하는 교회
2. 미래의 하나님의 일군을 길러내려 하는 교회
3. 이웃과 교회와 민족에 대하여 생명을 주려하는 교회
4.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교회이며,
지금까지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최초로 한국에 와 있는 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예배 처소와 쉼터를 만들고 그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국인 교회는 우리 나라 곳곳에 모퉁이 되어 태국인 교회를 세우고 있으며, 많은 태국인들을 믿음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낙원교회는 전 주민의 신자화, 전 신자의 제자화, 전 제자의 사역화, 사역을 통한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이루려하고 있습니다.

▶ 대표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명 : 낙원 은빛 노인대학
2. 시행기간 :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3. 목적 및 목표 : 동두천 지역 내에 살고 계신 노인 분들에게 여가와 식사를 제공하고, 강의 및 수강을 통하여 보람있는 노년의 삶을 살게 하고, 보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4. 대상자 : 동두천 지역 에 살고 계신 노인 분들
5. 세부 내용
 - (1) 정기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특강을 듣고, 점심식사를 교회 식당에서 한다.
식사 후에는 팀별로 나뉘어서 노인 분들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운다.
(개설 강좌/ 노래교실, 발 마사지, 종이 접기, 스포츠 댄스, 한글 교실, 장구, 영화보기 등)
 - (2) 비 정기 모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씩 야외로 가서 야유회를 가지며, 강연회나 연합 모임에 참여한다.
6. 예산 : 교회 예산 지원 700만원, 개인 지원 500만원 → 총 1,200만원
7. 시행 인력 : 교사 12명, 식사 주방 담당 8명 → 총 20명
8. 집행부서 : 낙원 은빛 노인대학 팀
9. 환경 조건(사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 : 노인 분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해줄 강사 섭외와 좋은 환경 및 간식
10.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 동두천 지역에 시에서 노인 여가 시설로 인가 받은 유일한 시설로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노인 분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11. 시행 동기 및 시행 연수(역사) : 동두천 지역은 유난히 문화가 뒤떨어져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많은 노인의 문제는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 3년 전에 실시되었다.

◆ 오산침례교회



- ▷ 위치 : 경기 오산시 궤동 55-2
- ▷ 담임교역자 : 고명진 목사
- ▷ 교회창립일 : 1962년 10월 3일
- ▷ 교단 : 기독교한국침례회
- ▷ 교인 수 :1500명
- ▷ 2003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무료급식, 목욕봉사, 경로대학 운영, 양로원봉사, 장학사역, 모범공무원선진지견학, 어린이집 운영

<오산교회 연혁>

- . 1962년 10월 3일 한기만 전도사 (현 여의도교회 담임)께서 교회 창립예배
- . 1969년 1월 이진선 전도사 (현 원천평화교회 담임목사)제2대 목회자로 부임
- . 1985년 5월 26일 현 교회당 기공식
- . 1989년 12월 28일 현 교회당을 준공
- . 1990년 12월 고명진 목사 부목사로 부임
- . 1996년 1월 1일 고명진 목사 담임목사로 추대
- . 1999년 9월 로렘 실버텔 준공
- . 2004년 4월 현재 제직총원 504명
(장로 20명, 명예장로 4명, 권사 54명, 명예권사 15명, 서리집사 411명)
평균출석 1500명
(장년 800-850명, 학생 120명, 유년주일학교 330명, 경로대학 100명)
교회기관 -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 마을목장131개, 위원회 46개
유관기관 - 영락어린이집(교회 내 부설기관)
양로원 (로렘실버텔 오산시 서동 위치, 실비유료)
오산경로대학 (매주 금요일12시-2시)
교회장지(경기도 안성에 소재)
영락어린이집(오산침례교회 내)



<오산 교회의 비전>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고 성도의 교제가 너무도 뜨거워서 무쇠 같은 마음도 능히 녹이는 "아! 그 교회"

불우한 이웃,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장애자들이 더불어 고통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는 조국과 민족의 내일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말씀과 기도, 전도와 교제가 넘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아! 그 교회"

불러야 할 노래가 있는 그 교회,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아! 그 교회"

흔들어야 할 것만이 휘날리는 "아! 그 교회" 100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는 빛깔로 여전히 세상에 빛이 되는 "아! 그 교회"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 그 교회"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는 물론 조국과 세계 평화 위해 소금역할을 하는 "아! 그 교회"

깊은 잠 꿈속에도, 잠꼬대에도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아! 그 교회" 가 바로 우리 오산침례교회의 비전입니다.



▶ 대표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명 :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2. 시행기간 : 2002년 1월 7일 - 현재
3. 목적 및 목표 : 경제적 빈곤 및 결손가정의 아동과 저소득 재가 노인들에게 급식 (도시락)을 제공하여 결식을 방지하고, 신체 발육 및 건강 유지 도모.
4. 대상자 : 경제적 빈곤가정, 편모·편부 가정, 저소득 재가 노인
5. 세부 내용
 - (1) 아동(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학생)에게 : 월요일 - 일요일까지 매일같이 교회내(로템 나무식당)에서 도시락 만들어 68개(2004. 3 현재)를 각 가정에 전달.
 - (2) 어르신 33분에게도 월요일 - 토요일까지 33개 도시락을 전달.
 - (3) 전달방법 : 교회내 자원봉사팀 40여명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매일같이 봉사.
 - (4) 봉사자들에게는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 안심 상해보험에 가입.
 - (5) 요일별, 봉사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봉사참여 인원 확충.
 - (6) 봉사인력 확보가 안될시 예산으로 인건비 지출을 할 경우 동사역을 분가함
6. 동역자(연대) : 방학동안에는 봉사활동 학생 소수 참여.
7. 예산 : 총예산 108,840,000
(정부지원 72,520,000, 자부담 36,320,000, 인건비 16,320,000, 물품 및 기타 20,000)
8. 시행인력 : 50명
9. 집행부서 : 오산침례교회 사무국
10. 환경 조건(사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 : 대형식당, 자원봉사인력 50명, 예산으로 인력 및 차량운영시 동사역 불가 차량 2대
11.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 지역 내 각 기관에서 결식가정을 추천하고 교회는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가정은 교회에서 전액 자 부담으로 봉사
12. 시행 동기 및 시행 연수(역사) : 당초 관내 사회 복지법인에서 1년간 운영하였으나 봉사인력 확보가 안되어 포기했던 일을 교회 전성도의 참여 결의로 현재 3년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음

◆ 고척교회



- ▷ 위치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172-6
- ▷ 담임교역자 : 조재호 목사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 교인 수 : 2700명
- ▷ 2003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월요사랑의 식당, 독거노인사역, 장애인 사역, 사랑의 간식 사역, 소년소녀가장 사역, 병원봉사사역, 경로대학, 아기학교, 문화교실, 이미용봉사, 가택수리, 천사운동, 어르신초청잔치, 고척어린이집, 관계기관협력사업, 노인

정 광열비 지원, 결식학생급식지원

고척교회는 2004년 올해로 교회창립 50주년 희년을 맞는다. 1954년 척박한 고척동에 십자가를 세우고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교회가 되어 지역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하고자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다. 2004년에는 사회봉사센터를 세워서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고 ‘지역공동체의 생활터전’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고척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보면 1987년에 시작된 고척 경로대학은 일찍이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관심 속에 노인복지사역으로 정착되었다. 현재 매학기 120여명의 어르신들이 입학하여 풍요로운 노년을 설계하는 경로대학은 지난 2002년 시작된 월요 사랑의 식탁(무료급식) 사역과 함께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1993년에 시작된 아기학교는 유아를 위한 교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유아기를 아기와 부모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현재 학기마다 80여명의 아기들이 등록해 부모를 포함하여 160여명이 이용하는 유아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문화교실은 현재 발마사지, 고전무용, 유아발레 등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20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학기마다 5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학기가 끝날 때는 발표회를 개최하여 배움을 통한 자기발전과 지역 내 건전한 여가문화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다양한 돌봄 사역

을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독거노인사역,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찾는 보육원사역, 장애인 개인을 돌보는 장애인사역, 소년소녀가정 사역 및 매일 환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필요한 청결관리 등을 돕는 병원봉사도 매일 구로성심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1일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난 방과후교실이 진행되고 있으며 월1회 좋은 이웃봉사단의 가택수리팀이 지역의 독거 어르신을 찾아 도배와 장판을 갈아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 이미용 봉사는 월2회 진행되고 있다. 좋은 이웃 봉사단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뿐만 아니라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 여러 재해로 인해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현장 곳곳을 찾아가 봉사하는 전문자원봉사단으로 5개 팀이 있으며 작년 12월에 창단 되었다.

고척교회는 작년을 ‘지역사회를 섬기는 해’로 정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2004년 ‘지역공동체의 생활터전이 되는 교회’, 2005년 ‘지역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교회’, 2006년 ‘지역공동체의 희망이 되는 교회’라는 지역사회를 향한 더 큰 비전과 섬김의 계획들을 갖고 있다.

주민들에게 내 집처럼 편안한 교회, 그래서 더 자주 오고 싶고 오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고척교회는 지역에 터를 잡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봉사로, 나눔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 대표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명 : 문화교실

2. 시행기간 : 년2회 봄학기(3월-6월) 가을학기(9월-11월)

3. 목적 및 목표 :

(1) 다양한 강좌를 통해 유익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문화를 이룬다.

(2) 교회를 개방하여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기발전과 자기성장을 이루도록 돕는다.

(3) 교인과 지역주민 간에 자연스러운 교제를 이루도록 한다.

4. 대상자 : 지역의 모든 주민. 아동

5. 세부 내용

(1) 대상 : 지역주민 모두(강좌에 따라 영 유아, 어린이, 성인)

(2) 입학기간 : 3월, 9월 개강

(3) 수업시간 : 주1회 50분-1시간, 총14회, 정원 20-25명

(4) 회비: 강좌당 25,000원 이내. 또는 무료

(5) 강사: 교인 및 지역주민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6) 교육내용

어린이강좌 - 영어동화, 유아발레, 종이 접기, 아동미술, 동화구연, 즐거운 유아음악, 만화그리기 등

성인강좌 - 일본어초급, 관광영어, 피부미용, 꽃꽂이, 테디 베어, 발건강지압(스포츠마사지), 켈트, 차밍라틴디스코, 한국무용, 유희, 워십댄스

6. 동역자(연대) : 문화교실팀, 강사모임, 사회교육부

7. 예산 : 10,000,000원 (7,000,000원/수강료 3,000,000원/교회예산)

8. 시행 인력 : 20명

9. 집행부서 : 사회봉사센터 사회교육부 문화교실팀

10. 환경 조건(사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 : 강좌에 따른 강사모임, 각 강좌당 공간 확보, 수강생모집과 관련 신문 전단지 배포 등

11.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 가까운 곳에 지역복지관이 없어 문화부재 지역인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부터 성인,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 학기당 400여명이 강좌를 듣고 있다.

12. 시행 동기 및 시행 연수(역사) :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지역문화를 만들고 교회와 지역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 대구남산교회



- ▷ 위치 : 대구 중구 남산2동 941-22
- ▷ 담임교역자 : 김학노(임시)
- ▷ 교회 창립일 : 1914년 12월 30일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 교인 수 : 2000명
- ▷ 2003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장애인 복지사업, 노인무료 급식, 외국인근로자복지사업, 남산교회 어린이집, 장기복역자 지원사업, 호스피스선교사업, 의료봉사활동, 장학구제사업, 대구남산복지재단운영

대구남산교회는 1914년 12월 30일에 남성현교회(현 대구제일교회)로부터 분립하여 창립된 교회이며 2004년 현재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전통적인 장로교회이다. 교회의 역사적 신앙적 자랑의 발자취가 많이 있지만 90년 교회역사 속에서 기억될만한 목회자들 가운데 우선 대구 계성학교의 초대교사와 YMCA 대구지부조직 등 한국 근대화의 선구적 삶을 살았던 이만집 목사가 있다. 이만집 목사는 대구에서의 3.1운동을 주도하였고 1919년 3월 8일 대구 서문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주도 한 독립운동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조성암 목사가 있다. 조성암 목사는 대구의 성자(聖者)로 불리었는데 말이 아닌 삶으로 설교한 설교가로서 유명하다. 대구고등성경학교 교장 출신의 조성암 목사는 학생들에게 절대적 존경을 받았고 남산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근래에는 진희성 목사가 20년 이상 목회를 하다 2003년 영남신학대학 총장으로 임지를 옮겼다. 진희성 목사의 목회기간 동안 본 교회는 다양한 선교프로그램이 정착 되었다.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 부분에서도 탁월한 면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교회이다. 장애인 사역은 1983년 6월부터 시작되어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장애인 사역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되었다. 장애우들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재활부분까지 관심을 가졌으며 장애인들의 결혼을 주선하고 수술을 지원하며 신앙수련회를 비롯한 교육에 중점을 두는 사역을 시행해왔다. 1996년부터는 장애인 부서인 미문선교회가 자체적으로 네팔에 장애인 단체를 후원하고 있다.



노인선교회는 1991년부터 시작되어 지금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목요일에 정기예배를 드림으로 목요선교회라 지칭하게 되었다. 목요선교회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뿐 아니라 노인들에게 교육, 의료, 운동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섬기고 있다.

의료선교회도 1987년에 창립되어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을 매월 정기적으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은 매년 여름 휴가기간을 통해 해외진료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단기 의료선교를 실시한 국가로는 요르단,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있다.

외국인근로자선교회 또한 본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외국인근로자 사역은 현재 중국어권 100명과 영어권 80명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교는 귀국한 근로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과 필리핀에 귀국한 근로자들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특수한 선교적 사명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에 보건 복지부로부터 대구남산복지재단 설립을 허락 받고 이듬해인 1998년 3월 「남산기독교종합복지관」으로 설치되었다. 남산기독교종합복지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가진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가정, 소년·소녀가장, 요보호 대상자 등에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 정보제공, 연대감 조성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특수한 선교적 바탕 위에서 복지를 통한 선교를 지향할 것이며 노인복지관 건립과 장애인생활관 및 장애인 공동작업장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섬길 것이다.



▶ 대표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명 : 외국인근로자 선교회

2. 시행기간 : 1995년부터 현재까지

3. 목적 및 목표 :

(1) 타국생활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종교생활을 통하여 안정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스스로 자조집단 모임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자체동아리 활동(Self-help) (컴퓨터교실, 찬양팀교실, 한글교실)을 통하여 정보화교육 및 사회관계망 형성
 - 문화행사를 통한 원활한 인간관계(이웃관계, 회사내 동료관계, 사회활동 등) 형성
 - 집단전문프로그램(자기성장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존감 강화
- (2) 교회 인력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자들의 사회적응력 강화 함
- 의료적 지지체계 구성(적십자 병원)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 도모
 - 법률상담 및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인권유린에 대한 대처 방법 모색 기능 강화
 -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노동상담소와 연계를 통하여 심리 정서적 안정고취 및 삶의 질 향상

4. 대상자 : 영어권 60여명, 중국어권 100여명

5. 세부 내용 : (자유롭게)

- 예 배 : 매주 1회 영어권 50여명, 중국어권 100여명
- 급식서비스 : 매주 1회 1520여명 급식지원
- 법률상담 : 수 시(교회내 변호사 장로님, 복지관 무료 법률상담 이용)
- 의료재활서비스 : 수시(지역사회 병원 연계(적십자 병원, 동산병원, 교회 의료선교 팀)
- 자조집단 : 찬양팀, 한글교실, 성경공부반 등
- 야외활동지원(야외예배, 체육대회) : 년 4회
- 차량운행 : 매주1회(승합차량 5대 운영)
- 명절맞이 부흥집회(설, 추석) : 년 2회

6. 동역자(연대) : 화교학교와 연계하여 통역 및 봉사활동

7. 예산 : 30,000,000원

8. 시행 인력 : 외국인근로자 선교부

○부장 : 신한철 장로 ○차장 : 정선자 권사 ○서기 : 서재성 장립집사

○부원 : 권태찬, 김경숙, 김대선, 김동근, 김성교, 김용성, 박정희, 성순학, 송홍자, 김옥녀, 심현숙, 윤희숙, 이강호, 이경미, 이상조, 이승희, 이영덕, 이영철, 이종현, 이창열, 임분순, 장춘자, 전종렬, 전정순, 정소영, 정충구, 제미자, 최상태, 최승옥, 허경옥, 현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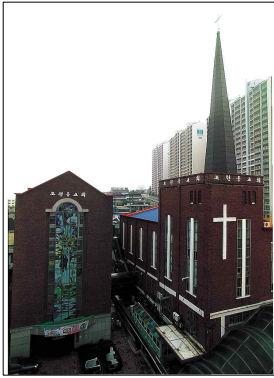
9. 집행부서 : 외국인근로자선교부

10. 환경 조건(사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면 가능

11.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 사회적,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교회로 초대하여 그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각 사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직률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12. 시행 동기 및 시행 연수(역사) : 1995년 한 두 명의 중국어권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해 왔다. 처음에는 그냥 상담에서 그쳤는데 그 회수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선교회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영어권, 중국어권 200명에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 받고 있다.

◆ 도원동교회



- ▷ 위치 : 서울 용산구 도원동 4-3
- ▷ 담임교역자 : 박용경 목사
- ▷ 교회 창립일 : 1946년 6월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 교인 수 : 1500명
- ▷ 2003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무료급식과 무의탁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주부대학 문화교실, 노인학교, 도원 어린이집, 도원유치원, 음악학교

저희 도원동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으로서 서울 서노회에 속해있으며 지금부터 58년 전인 1946년 6월에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11명의 교역자와 4명의 사무직 15명의 장로들이 세례교인 1,500 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본당(3층)과 교육사회관(5층)에서 매주 성인 약 900명 초중고학생 약 3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25 동란 이후 1958년부터 영생공민고등학교를 운영하였고, 1975년부터 유치원, 1983년부터 노인학교, 1992년부터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1993년부터 6년 동안 구립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 교회 주변 지역 사회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후 그 자료를 근거로 1993년에 무료급식과 무의탁 노인 밑반찬 배달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담과 대문을 모두 헐고 그곳에 주민들이 쉽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994년부터 지역주부를 상대로 주부대학(문화교실)을 개설하였고 1997년부터는 음악학교를 개강하여 지역주민 자녀들에게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 등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동회, 구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민방위 훈련장, 선거장소, 이재민 수용시설, 예식장 무료개방,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였고 한방무료진료, 이미용봉사, 헌혈운동, 동네청소운동을 펼치면서 지역주민과 늘 함께 하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먼저 찾아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



“나면 끝이 난다.” 슬로건 아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건강한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행복하고 좋은 교회 (살전 1:3)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인 모두가 자원봉사자로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표어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로 정하고 1.2.3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한 사람이 한 영혼 구하는 교회
2. 2,000명이 모이는 교회
3. 30개 교회와 선교사를 파송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저희 교회는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며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짐에 따른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이웃들을 더욱 보살피며 첨단 과학의 발달로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하기 쉬운 청소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대표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명 : 경로식당
2. 시행기간 : 2003. 1. 1 - 12. 31
3. 목적 및 목표 :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외롭게 남아있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림으로 어른들을 공경한다.
교인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한다.
4. 대상자 : 독거 노인, 생활보호 수급 대상자, 장애인자 (주 3회 실시)
5. 세부 내용 : (자유롭게)
경로식당을 통해서 ,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교회로 소문나게 되었다.
새 가족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월, 화요일은 자원봉사 희망자들로 조가 짜여지며, 목요일은 1개월씩 여선교회가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있으며 , 교인이 아닌 지역 주민들중에서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청년들이 조를 짜서 참여합니다.
6. 동역자(연대) : 담당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 부장집사
7. 예산 : 교회 예산 : 9,320,000
 구청 지원 예산 : 32,640,000 ----- 합계 : 41,960,000
8. 시행 인력 : 50 명
9. 집행부서 : 사회위원회 경로식당
10. 환경 조건(사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 : 주방시설, 식기류 , 봉사자
11.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 점심을 건너뛰는 어른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지속해서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 시행 동기 및 시행 연수(역사) : 1993. 6. 15부터 현재까지 12년째 시행

◆ 해인교회



-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산2동 903-18
- ▷ 담임교역자 : 김영선 준목사
- ▷ 교단 : 기독교대한장로회
- ▷ 교인 수 : 125명
- ▷ 2003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노숙자 쉼터, 여성 및 가족 쉼터, 결식노인 경로식당, 결식아동 탁아공부방, 쪽방상담소, 푸드뱅크,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

해자보호시설, 재활용센터, 여성자활시설

해인교회는 1986년에 인천 지역사회의 해방과 인간해방을 염원하는 사람(평신도)들이 모여 교회를 먼저 세우고 목회자를 청빙한 교회로서,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세운 교회로서 초기부터 민주적인 훈련과 가치를 중요시 되온 교회이다.

해인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의 중심에는 말씀으로 자유와 해방의 소식을 선포하며 실천하는 교회로, 교회 자체를 위한 소비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는 교회다.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모두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워가는 교회이며, 성차별이 없는 평등한 교회를 지향한다. 우리 해인공동체는 노숙인과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공부를 하며, 함께 밥상공동체에 참여하며, 함께 친교를 나눈다. 그동안 역대 교회의 목회자를 둘러보아도 특별히 여성목회자가 2대와 3대에 걸쳐 목회를 하였고, 현재도 김영선 목사가 담임(5대)을 맡고 있다. 목회자와 동역하는 평신도들의 구성을 보아도, 제직회원들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같이하고, 우리 해인의 선교체인 노숙인 쉼터에서 자활 자립한 신앙인도 차별없이 제직으로 받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있다.

지역사회에 항상 열려 있는 해인교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에서 박스를 주어 연명을 하시는 어려운 노인들 80여명이 매일같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있으며, 상담과 더불어 그들의 필요를 함께 나누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해인교회는 대교회를 지양하고 오히려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지향한다. 목회자가 지역을 거닐 때면 박스를 줍다가 인사하는 지역민들, 분주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좋아하는 지역 주민들의 인사를 흔히 나눌 수 있는, 좀처럼 도심지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의 교회이다. 뿐만 아니라 해인교회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농어촌 교회와 연대하는 교회이다. 1994년 이준모 목사가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교회의 십분의 일을 떼어 교회 밖의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겨 왔으며, 이제는 실직자 쉼터 및 자활모임터로써 내일을 여는 집을 세워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웃

들의 터전으로서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

해인교회가 세운 내일을 여는 집은 지난 IMF라는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를 위한 전교인 특별 수요기도회의 결산물로 1998년에 세워졌다. 실업대란 속에서 빈곤으로 인한 노숙인(남성/여성)을 위한 쉼터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쉼터를 마련하고,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결식아동을 위한 탁아방 및 공부방, 지역사회 극빈층을 위한 쪽방상담소 및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센터와 내일을 여는 사람들(유기농 식사와 전통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선교와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민간사회단체를 통한 지역공동체운동의 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해인교회가 있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밥과 빵을, 잠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쉼터를, 가난과 맞벌이로 자녀 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는 탁아·공부방을, 가정폭력으로 피신해 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상담과 피난처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터와 취업을 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음으로 살 맛 나는 '내일'을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먹는 것과 잠자리, 그리고 일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정작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갈망하는 이들에게 해인교회라는 신앙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한 영역인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해인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고, 아픈 곳을 싸매 주는 손길이 있고,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의 외침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존엄성을 잃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사역에 부름 받은 해인교회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소외된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 대표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명 : 노숙자 쉼터 / 여성 및 가족 쉼터
2. 시행기간 : 1998년 이후 연중 계속
3. 목적 및 목표 :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노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취업을 알선하여 자활하도록 돕는 한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제적 자활뿐만 아니라 영적 자활을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서게 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다.
4. 대상자 : 노숙자 쉼터 입소자
5. 세부 내용
 - (1) 기초상담 후 시설에 입소, 숙식 제공 ; 기본적인 생활 지원
 - (2) 심리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노숙자들의 심성을 완화하고, 자활의지를 고양시키는 프로그램
 - (3) 자활 프로그램 운영
 - 남성 노숙자 자활을 위한 재활용센터 운영(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일체)
 - 여성 노숙자 자활을 위한 식당 운영(친환경 농산물 음식 및 전통차 판매)
 - (4) 교회 교인들(신도회원)과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체육행사 및 수련회 등)
 - (5) 자원봉사활동 ; 노숙자도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동역자(연대) : 전국실직노숙자종교시민단체협의회 담당자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인천노회 등
7. 예산 : 157,143,450원(정부보조금 및 민간단체지원금 125,981,610원; 후원금, 교회지원금 및 차입금 31,161,840원)
8. 시행 인력 : 노숙자 쉼터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해인교회 교인
9. 집행부서 : 선교부 및 제직회

10. 환경 조건(사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 : 쉼터 시설(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 열악한 환경임), 재정(정부보조금이 극히 미약하여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해인교회 선교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마이너스 재정임)

11.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인천 지역은 공단이 많고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실업으로 인한 노숙자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서울의 외곽지역으로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공원과 지하철역 등에 노숙자가 많이 기거하여, 수시로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노숙자와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시행 동기 및 시행 연수(역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실직노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1998년에 내일을 여는 집을 설립하여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다보니 여성 노숙자들이 다수 발생하여 ‘여성 및 가족 쉼터’를 만들게 되었고, 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그 자녀들을 돌보는 탁아방을 만들게 되었으며, 그 중 상당수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이 드러나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게 되었다.

내일을 여는 집을 찾는 지역사회와 극빈층들을 위해 푸드뱅크를 만들어 생활을 돕고, 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쪽방 지역에 쪽방상담소를 만들어 극빈층의 생계 및 의료 등 생활 지원을 하게 되었다.

또한 노숙자들을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자활하기 어려워, 노숙자 자활을 위한 사업장으로 ‘재활용센터’(남성 자활사업)와 자활식당 ‘내일을 여는 사람들’(여성 자활사업)을 만들어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노숙인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활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노숙자들의 심성을 완화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회 예배와 행사를 함께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회 직분을 맡게 된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또한 쉼터에서 자립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근처에 집을 마련하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해인교회가 특수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서, 아주 작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해인교회의 선교체인 내일을 여는 집의 사역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삶의 지지대와 희망이 되고,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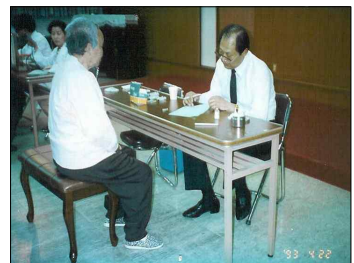
◆ **덕수교회**



-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43-1번지
- ▷ 담임교역자 : 손인웅 목사
- ▷ 교회 창립일 : 1946년 3월 10일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 교인 수 : 1500명
- ▷ 2003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노인학교, 경로 식당, 독거노인 후원 결연, 도시락배달, 경로잔치, 어린이교실,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 소년소녀가장 후원, 벽촌 어린이 초청, 장학사업, 성북사회봉사단, 생명캠프, 여성문화대학, 극빈가정 미곡지원, 의무실 운영, 이미용의료봉사, 사랑의 헌혈, 알뜰시장, 개안수술

덕수교회는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개혁교회의 신앙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유서깊고 건실한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지교회로, 1946년 3월 10일 원로 목사이신 고 최거덕 목사와 7세대의 교인들이 모여 정동 서학재에서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창립5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948년 성북동으로 이전하였고, 1977년부터 현재 2대 손인웅 목사의 담임으로 17명의 교역자와 2,500여 교인들이 화목한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지역사회 속에서 등대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덕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 ■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은 심히 아름답다” (창세기 1:31)

1	“모든 생물은 기쁨으로 창조주를 찬양한다.”	예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린다.	

2	“모든 생물은 살기를 원하고, 살림의 문화를 바란다.”	선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상생의 문화창달을 위해 힘쓴다.	

3	“모든 생물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한다.”	교육
	우리는 생명이 균형있게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한다.	

4	“모든 생물은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기뻐한다.”	사회 봉사
	우리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한다.	

5	“모든 생물은 창조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친교
	우리는 화목한 교회의 전통을 지키며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일한다.	

우리 덕수교회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일을 목표로 한다.

▶ 대표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명 : 덕수노인학교

2. 시행기간 : 1학기(3월 6일 ~ 6월 26일)

2학기(9월 4일 ~ 12월 11일) 년 28주

3. 목적 및 목표

- (1)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
- (2)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서적 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
- (3) 사회적 안전망에서 취약하기 쉬운 어르신의 복지 증진(기타 프로그램과 연계)

4. 대상자 : 지역의 60세 이상의 어르신(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

5. 세부 내용

덕수교회가 위치한 성북동은 빈부격차가 많은 주택지이다. 노인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관, 어린이 놀이터가 적고 청소년 문화 공간도 없다. 교회 근처에 위치한 2002년 말 현재 성북1동 인구는 총 7,682명, 남자 3,799명, 여자 3,883명이며, 성북2동 인구는 8,471명, 남자 4,214명, 여자 4,257명이다. 특히 교회 뒤쪽 성곽 아래 동네에는 도시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다. 이곳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 다 미치지 못하는 틈새계층이 존재하고 이들을 향한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은 독거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교회가 덕수궁 근처에서 현 위치로 1985년에 이전하였을 때는 그 전에 교회가 위치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환경이었다. 교회가 이전하였을 때 성북 2동 지역은 사회복지기관이 미비하고 기독교 관련 시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지역의 분위기가 있었다. 평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학적 고민과 실천적 신앙을 교우들에게 강조하던 담임목사인 손인웅 목사는 전 교우들에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본격적으로 사회봉사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다. 교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사회봉사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을 확인하고 외부 강사를 통한 각 종 세미나와 교육과 기도회 등을 통해 교인들의 의식을 다시 한 번 재무장하고 지역육구 조사 등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 중의 노인학교는 덕수교회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특히 소외 계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 아래 독거 노인 후원, 도시락 배달, 의무실, 이미용 의료봉사 사업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 목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1시까지 운영하는 덕수노인학교는 화요일은 치료레크레이션이나 발맞사지 등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경로식당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목요일은 전체모임과 반별모임 그리고 경로식당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생일자 축하, 외부강사 초청 세미나들을 하고 있으며 반별모임은 노래반, 무용반, 보건반, 성경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노인학교는 노인학교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독거 노인이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노인학교를 통해 교회의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파악하고 그 분들에게 정기적 후원과 도시락 배달 등을 하고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위원회 산하 의료선교회와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3년도의 노인학교의 개략적 학사보고는 다음과 같다.

※ 현 황

- 재 적 : 110명 (남7, 여103)
- 교 사 : 목사님 외 교사 13명
- 수업일수 : 1학기(3월 6일 ~ 6월 26일)
2학기(9월 4일 ~ 12월 11일) 년 28주
- 새로 등록하신 분 : 30명(4명 계속 출석)

※ 2003 행사개요

- 개학식 : 2003년 3월 6일(목)
- 이야기대회(방학동안에 있었던 일), 학생발언대
- 반별활동 - 각반담임(성경, 보건1, 보건2, 음악, 무용)
- 특강 - 건강, 가정, 신앙(강사초빙, 연4회)
- 레크레이션 - 치료레크레이션, 율동(강사초빙, 연5회)
- 매주 신입생 환영 및 축하 - 광고시간
- 매월 첫째 목요일 - 오후 정기월례예배(1시-2시), 평균 60-70명 참석
- 매월 마지막 목요일 - 생일축하예배(선물 및 축하)
- 경로잔치 - 연1회 지역주민과 함께(300-400명)
- 소풍 - 연2회(봄, 가을)
- 의료진료 및 이미용 - 연2회(1,2학기 평균 80-90명 진료)
- 학생 심방 - 병환중의 학생(병원 및 가정)
- 발표회 - 마지막 수업(일년 결산 발표, 음악, 무용반 위주)

- 봉사관 12주년 개관행사 - 발표회(12/14 주일, 음악, 무용반 참가)
- 임시소집일 - 2004년 2월 중순경(친교 율놀이)
- 종강예배 - 시상(개근, 정근, 봉사) 및 축하
- 신년개학 - 2004년 3월 4일(목)

※ 경 로 식 당

- 매주 화요일 - 레크레이션(11시-12시), 점심식사(노인학교와 함께 방학, 개학함)
- 거택보호자 - 봉사자 도시락배달(화요일마다, 연중무휴, 9가정 배달)

6. 동역자(연대) : 성북구청 가정복지과, 성북1,2동, 김명선내과, 성모안과

7. 예산 : 2,340,000

8. 시행 인력 : 담담목사1명, 사회부 간사1명, 노인학교 간사1명, 교사13명, 식당봉사 20명

9. 집행 부서 : 덕수교회 사회봉사위원회

10. 환경 조건(사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

- (1) 지역의 인구 생태학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 (2) 교회와 지역 주민의 관계성
- (3) 자원봉사자 확보

11.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 덕수교회 노인학교는 사회적 변화와 지역사회의 욕구를 일찍이 파악하여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교회가 지역교회로 자리잡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특히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사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파악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12. 시행 동기 및 시행 연수(역사)

- (1) 시행동기 : 노인인구가 많고 그 중에 독거 노인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작함.
- (2)시행연수 : 1989년~현재



부 록

제2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이 시대의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좇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실현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제2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賞)》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류심사 * 1차 서류심사(2004년 3월 5일자 이메일 등록 분까지)

현장심사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교회들 대상

시상일정 * 4월 중 예정(사회복지위원회 창립기념일)

시상내용 * 전체 10개 교회(농어촌, 증, 소, 대도시, 특수목회지역)

시 상 품 * 교회사회복지지원금 100만원, 기념동판, 상패, 소망화장품지원제품 등

■ ■ 선정기준

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 교회시설의 개방 정도,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 운영주체의 창의성과 전문성, 운영의 합리성과 개방성, 평가
방법의 활용도, 본 교회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 교회 총 예산 중 사회
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 프로그램의 지속기간과 파급효과,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력 정도

■ ■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http://kr.cemk.org/welfare>)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접수 후 우편으로 송부

(겉봉투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신청서'로 표기)

주소 | 151-600 서울시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문의 | 전화 871-7487, 팩스 883-2177

(담당 | 유성희 간사 011-9947-7624 사회복지위원회 이영규 총무
019-428-7277)

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CBS TV 



후원 | 소망화장품  , 극동방송

《제2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1. 취지

교회는 지역사회와 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기운실에서는 교회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해 널리 개방되고, 훌륭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賞)”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상을 통해 공개되어지는 자료와 프로그램 및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 매김 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 응모 기간 : 2004년 2월 5일 ~ 3월 5일
- * 응모 자격 :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 있는 어떤 교회나 가능
- * 접수 방법 : 기운실 사회복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후 우편접수
홈페이지(<http://kr.cemk.org/welfare>) 이메일(gijunsil@cemk.org)
(주소) (151-600) 서울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담당자앞
- * 심사 과정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장실사(1차 통과한 교회) → 3차 최종 선발
(3월 20일 까지) (4월 5일 까지) (4월 13일)
- * 시상 내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특수사역 4개 분야 - 총 10교회
(특수목회사역교회 - 사회복지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성도의 대다수가 본 교회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 * 시상식 : 4월 26일(월) 오후 4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소강당
- * 시상품 : 교회사회복지 지원금 100만원, 기념동판, 상패(꽃다발), 소망화장품지원제품
- * 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CBS TV
- * 후원 : 소망화장품  SOMANG Cosmetics, 극동방송
- * 문의 : 유성희 간사
(tnmimi@cemk.org / <http://kr.cemk.org/welfare> / ☎ 02-871-7487)

3. 심사 기준

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 교회 시설의 개방 정도,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 운영주체의 창의성과 전문성, 운영의 합리성과 개방성, 평가 방법의 활용도,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 본 교회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 프로그램의 지속기간과 파급효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소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신앙의 당연한 실천으로 사회복지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교회 사회복지 사업의 계획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교회 지도자 및 평신도 사회복지학교를 개설하여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4월에 창립되었다.

1. 창 립 : 2000년 4월 24일
2. 세 미 나 : 1차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와 건강한 사회”
2차 “출판기념회와 세미나”
3차 “교회시설개방에 대한 설문 결과 발표”
3. 교육활동 : “사회복지 실천학교” 운영(2001년)
교회 및 신학대학 순회강사 지원
교회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2003년)
4. 출판활동 :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와 건강한 사회”
“교회시설개방과 복지 그리고 선교”
5. 시 상 : “제1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시상
“제2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진행 중



6. 위원소개 :

[고 문] 유의웅 목사(도림교회),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김동엽 목사(목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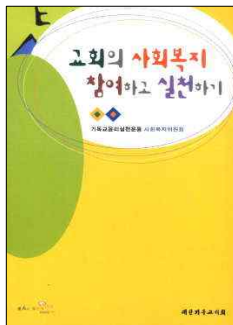
[위 원 장] 조홍식 교수(서울대)

[부위원장] 강영실 교수(한국성서대)

[총 무] 이영규사장(우리음식이야기)

[위 원] 김경식 관장 김 인 교수 김동배 교수 김미혜 교수 김수정
교수 김종일 교수 김혜란 교수 김현호 목사 두준기 이사 맹용길 교수
박경숙 교수 박정수 목사 배은영 교수 송시섭 변호사 오세란 교수 오창섭
교수 유희정 박사 윤종호 사장 이기영 교수 이만동 목사 이무영 교수
이영분 교수 이창희 교수 정순돌 교수 장혜경 박사 최성재교수

7. 발간 서적 :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대한기독교서회, 2001. 4)



이 책은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에 속한 사회복지 교수, 기윤실 실무자, 목사 등 17명이 참여하여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신학적 및 성경적 근거, 사회복지적 근거, 교회 사회복지사업 준비 방법등을 말하고,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천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